

전시리뷰

奈良國立博物館開館130年記念特別展

《超國寶—祈りのかがやき—》

2025年 4月 19日 ~ 6月 15日

奈良國立博物館

〒630-8213 奈良市登大路町50番地

정명희*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가을은 쇼소인(正倉院) 보물을 공개하는 특별전의 긴 행렬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른 봄부터 《超國寶》 특별전을 보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다시 보기 어려운 전시라는 평가와 함께, 51일의 전시 기간동안 336,831명이 방문했다. 일본 전역에서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 언론사 기자, 박물관 관계자들이 나라로 향했다. 일본 아스카 시대를 대표하는 호류지(法隆寺) 〈관음보살입상〉에서 시작되어 약 1600년 전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알려주는 〈七支刀〉로 마무리되는 구성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별전에는 국보 112건, 중요문화재 16건 등 총 143건의 유물이 출품되었다. 전시를 구성하는 중심축은 불교미술과 神道미술로, 일본 고대 신앙과 시각 미술의 정수를 아우른다. 나라 지역은 일본 불교미술의 중심지로, 국보 지정 수는 전국 3위,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일본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박물관 소장품뿐 아니라 도다이지, 고후쿠지, 야쿠시지, 호류지 등 일본 불교미술사에서 핵심적인 사찰의 대표 유물이 대거 출품되었다. 나라 지역이 지닌 종교문화적 기반과 예술적 성취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오늘날 일본이 보존해온 신앙과 예술의 유산을 집대성한 구성이었다.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특별전의 제목 ‘超國寶’는 단순히 최고의 예술품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신앙과 공동체의 기억을 담은 유물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1872년 도쿄 문부성박람회를 계기로 帝國博物館(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신)이 개관한 이후, 나라국립박물관은 1895년 불교미술 전문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불교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이 심해지자 사찰과 고문서·기록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古社保護法 1897, 國寶保存法 1929]이 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라국립박물관이 개관 130주년을 기념해 ‘초국보’ 특별전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문화재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건립된 박물관의 역사에 부합한 선택이었다. 총 7부로 구성된 전시는 국가적 보물들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였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1부에서는 〈호류지 관음보살입상〉 이외에도 주구지〈天壽國繡帳〉 등이 출품되었다. 2부는 박물관 건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奈良博覽會’(1888년)로부터 이어진 나라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고후쿠지[興福寺] 〈天燈鬼立像〉, 〈龍燈鬼立像〉, 〈龍首水瓶〉

등 대표 유물의 경우 나라박람회 전시되었을 때의 모습을 촬영한 흑백 사진을 제시하거나 당시의 전시 방식을 재현해 연출했다. 3부에서는 아스카 시대의 사리매납부터 가마쿠라 시대의 사리신앙까지, ‘석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을 소개했다.

4부는 헤이안 시대에서 가마쿠라 시대의 불화와 공예에 구현된 정도의 세계를, 5부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적 체계를 구성해 온 신도 예술의 전개와 미학을, 6부는 12세기〈금광명최승왕 경 금자보탑만다라〉등 사경의 미와 고승의 필적으로 구성했다. 7부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인들의 기도와 유산을 되새기도록 했는데, 전시 마지막에 마련된 ‘기도의 방’은 불상과 마주한 관람객의 사유가 시작되는 공간이란 점에서도 상징적이었다. 전시 전반부에는 교토 호보다이인 간토쿠지(寶菩提院願徳寺)의 보살반가상을, 후반부에는 주구지(中宮寺) 반가사유상을 노출 전시했다. 전시를 기획한 이노우에 요이치(井上洋一) 관장은 “국보는 과거의 기도를 담은 결과이자, 그것을 전승해 온 사람들의 온기를 고스란히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박물관의 역사에 있어서도 2025년은 의미있는 해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시초는 1909년 대한제국 황실이 창경궁에 개관한 帝室博物館이지만, 1945년 광복 이후 朝鮮總督府博物館을 인수하며 ‘국립박물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올해는 그로부터 80주년이자, 현재의 위치인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물관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이들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는 곳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역사적 격변 속에서 민족문화의 수호와 재정립이라는 사명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시공간을 넘어 세상의 경이로움을 마주하는 공간으로 그 기능을 확장해왔다. 나라국립박물관의 《초국보》 특별전은 과거의 깊이를 오늘에 불러내고, 미래를 향해 열어 놓는 장소인 박물관의 본질을 다시금 환기시켜 주었다.